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2월 2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정대진, 사무관 윤선영(2110-5122)	

금년 SW수출 사상최대 100억불 돌파 전망

- 지경부, 11년도 SW진흥예산 2천억원 이상 투입 예정
- 최중경 장관, 모바일 SW업체 현장방문 및 업체간담회 가져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월 21일(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모바일SW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 SW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메리어트호텔)**하여 SW 산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인프라웨어 : '97년 창업한 모바일 SW회사로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 브라우저·모바일 Office 등 생산('09매출 300억원, 코스닥 165위)

□ **최중경 장관**은 "최근 스마트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SW가 제품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SW기업들의 노력으로 금년에는 **수출이 1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SW산업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울러, "일부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심화·열악한 수익구조·해외진출 애로** 등 **국내SW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위하여 **산관학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금년 우리나라 SW산업 전망에 따르면,

○ 우리나라 **금년 SW 생산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41.4조원**으로 전망되어, **전세계 SW시장규모 증가율(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SW **수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07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그동안 주로 국내시장에 안주해왔던 **IT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14억불로 전망

□ 지식경제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에 다음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① 글로벌 타겟형 명품SW 개발 및 SW품질역량 확충(1,600억원)

○ **World Best SW 개발**('11년 1,000억원) : 지난해 선정한 7개 프로젝트(모바일SW, 영상진단SW 등) 개발을 본격화하고, 금년 신규과제로 국방·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분야를 Top-Down방식으로 기획하여 상반기중 컨소시엄 선정

○ **SW원천기술개발**('11년 313억원) : 임베디드SW, 공개SW,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 차세대 웹 등 주요 SW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중 신규 과제를 공고하여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

○ **SW품질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SW **최종 상품성 확보와 사후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개발품질 신뢰성 확보를 추진**

* CEO·경영층의 SW품질인식 전환, ISO/IEC 등 SW품질관리 국제표준 기준에 적합한 품질인증체계 구축, SW컨설팅 기업 육성, 자격·수행능력 관리 등

② SW인력 양성(232억원, 3,520명 교육)

○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과 **IT명품인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급 창의인재를 양성

* SW마에스트로 : 최고급 정예인력을 선발, 멘토가 집중 교육(50억원, 100명)
IT명품인재 양성 : 연구중심 교과과정, 다학제적 교육 실시(75억원, 100명)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을 중소SW기업·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석사취득과 동시에 기업에 근무토록 지원 (30억원, 220명 교육)

○ **자동차·모바일 등 융합분야 SW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직자 재교육, 신규채용을 지원

* SW융합 역량강화과정 : 재직자 재교육(30억원, 2,100명)
SW융합 채용연수 : 신규취업자 대상 교육(47억원, 1,000명)

③ 건전한 SW생태계 조성

○ SW 제값주기를 위하여 **수발주제도를 개선**하고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 분할발주 이행 점검·감독 강화, 기술성평가 비중 강화, 중소SW기업 우대, 상용SW 유지보수율 현실화 등

○ 선진국 수준의 **Global Practice 도입**을 위하여 新RFP 보급을 확산하고, 분할발주방식 등도 적극 검토

④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신흥경제시장(자원부국 등)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구축을 지원하고, **대상 국가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5억원)

○ 또한 가트너(Gartner), IDC 등 글로벌 조사기관에 양질의 **국산 SW 제품에 대한 성능 분석을 의뢰**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2억원)

□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금년 **총2,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분 야	2010년	2011년	증감율(%)
< SW 해외진출 >	**7,100**	**7,445**	**4.9**
< SW R&D >	**94,058**	**160,058**	**70.2**
○ SW 원천기술개발	35,358	31,258	△11.6
○ WBS 프로젝트	24,000	100,000	316.7
○ 기술확산 지원 및 연구기반 구축	34,700	28,800	△17.0
< SW 인력양성 >	**11,000**	**23,200**	**110.9**
< SW 생태계 조성 >	**26,135**	**23,511**	**△10.0**
합 계	**138,293**	**214,214**	**54.9**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SW기업 대표들은 우리나라 SW산업 당면 문제로 **▲우수인력의 SW기업 기피, ▲영세한 기업규모, ▲미흡한 품질역량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 ▲SW에 제값을 쳐주지 않는 관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을 언급하며, SW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지적**

□ 이에 대해, 최장관은 **'대학 IT인력양성 대책'(3월), 'SW-시스템 반도체 동반육성 전략'(6월)** 등을 통해 근본적인 SW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SW 업체들의 건의사항도 검토하여 동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함

【 붙임자료 】 1.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
2. 현장 방문 및 SW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3. 방문업체(인프라웨어) 참고자료

붙임 1 |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

2011년도
SW산업 육성 대책

2011. 2. 21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SW산업 동향 및 전망 ····· 1

1. 세계시장 ····· 1

2. 우리나라 ····· 2

Ⅱ. 우리 SW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 4

Ⅲ. 그간의 정책 평가 ····· 7

Ⅳ. 중점 추진 과제 ····· 8

1. 전략적 R&D 지원 및 기술기반 구축 ····· 8

2. 창의적 SW 최고급 · 융합 인재 육성 ····· 10

3.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 11

4. SW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12

5. SW-SoC 동반육성 전략 수립 ····· 13

Ⅴ. 세부추진 일정 ····· 14

〈 참고 〉 2011년도 SW산업 예산 ····· 14

Ⅰ SW산업 동향 및 전망

1 세계시장

□ '10년 세계시장은 '09년 대비 **약 2.5% 증가한 1조 121억불**이었으나, **금년에는 4.5% 증가한 1조 572억불** 예상

* 핸드폰 시장(1,700억불)의 약 6배, 반도체 시장(3,040억불)의 약 3.4배('10년)

○ 이는 SW산업의 글로벌 경기 침체('08 → '09, △1.7%)에서의 회복과 **모바일·클라우드·SNS 시장 팽창에 기인**

* '11년 사업은 스마트워크 · SNS, 기술은 가상화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유망 전망

1 **(패키지SW)** '10년 시장은 '09년 대비 **약 3.8% 증가한 3,048억불** (전체의 30.1%), 금년에는 **5.4% 성장한 약 3,212억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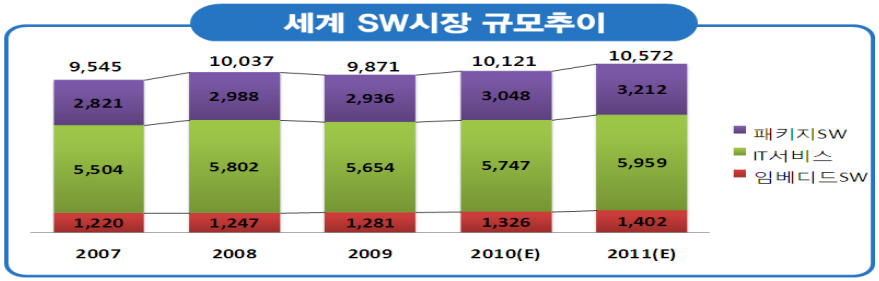
○ **클라우드, ICT융합, 소셜 네트워크** 등 新시장 창출의 본격화와 함께 투자 확대가 높은 성장을 견인해 갈 전망

2 **(IT서비스)** '10년 시장은 '09년 대비 **약 1.6% 증가한 5,654억불** (전체의 56.8%), 금년에는 **3.7% 성장**하여 **약 5,959억불**에 달할 전망

○ 일반 기업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공격적 IT투자**에 나서면서 IT서비스 기업의 역할이 지속 확대 예상

3 **(임베디드SW)** 지난해는 '09년 대비 **3.5% 성장한 1,326억불**(전체의 13.1%), '11년에는 **5.7% 성장한 약 1,402억불** 추정

○ 경기회복 추세로 모바일·자동차·조선 등 완제품 시장 확대 전망, 특히 **全업종 제품의 '스마트화'로 임베디드SW의 비중 증가 추세**



출처 : IDC(2010.7), ETRI(2010.7)

2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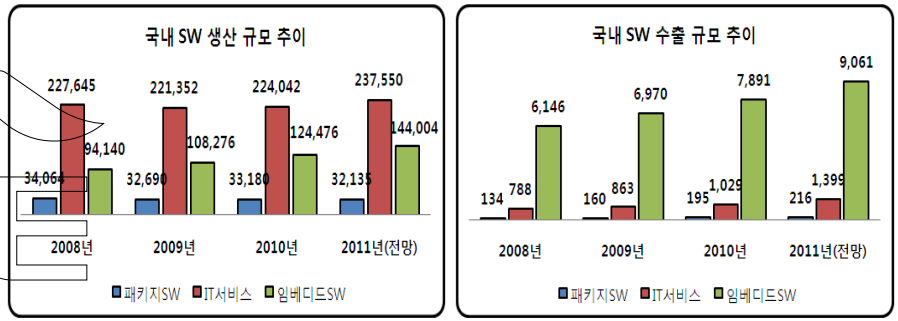
□ **'11년 SW생산**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41.4조원** 전망, **수출액**은 **17.1% 증가**하여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한 106.8억불** 예상

* ('10년 실적) '10년 SW생산액은 '09년 대비 5.3% 증가한 38.2조원, 수출액은 14.0% 증가한 91.2억불로 집계

* 국내 생산 중 임베디드SW 비중은 증가('08, 26.5% → '11, 34.8%)한 반면, 패키지SW('08, 9.6% → '11, 7.8%)와 IT서비스('08, 64.0% → '11, 57.4%)는 감소 추세

○ **생산·수출 증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투자 본격화, **수익 개선 기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기인**

【국내 SW 생산 및 수출 규모 추이('08~'11, 조원(생산), 백만불(수출))】



1 **(패키지SW)** '11년 생산은 '10년과 유사한 **3.2조원대 예상, 수출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2.2억불** 추정

* ('10년 실적) '10년 생산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3조원(전체의 8.7%)이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21.8% 성장하여 약 2.0억불 시현

○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시장 장악, R&D 등 장기 투자 부재로 인한 SW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SW제값받기 未정착 등 생태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기업의 성장이 정체**

- 다만,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침체 분위기***를 딛고, **해외진출·新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

* 티맥스소프트의 계열사 매각, 핸디소프트 최대주주 횡령, 한글과컴퓨터 매각

** 보안 어플라이언스(안철수연구소), 모바일용 오피스SW(한글과컴퓨터)

2 **(IT서비스) '11년 생산**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23.8조원, 수출액**은 **36.0% 증가한 14.0억불** 전망

* ('10년 실적) '10년 생산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22.4조원(전체의 58.7%)이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약 10.3억불 달성

○ 일부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 축적**으로 해외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ICT융합 분야에서 新시장 발굴**이 전망되는 상황

* (삼성 SDS) 쿠웨이트「유정시설 보안시스템 통합프로젝트」수주(4.4억불)
* (LG CNS) 사상 최초로 일본에 금융정보시스템 수출(SBI생명보험, 150억원)

- 특히, **기업간 M&A*를 통한 대형화**로 기술·시장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계열사 합병) 삼성SDS + 삼성네트웍스, 포스데이터 + 포스콘
(인수) 삼성SDS ← 티맥스코어, 롯데정보통신 ← 현대정보기술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수주 동향】

◈ '10년 총 21개국 13억 1,106만불 수주(업계 집계, 잠정) → **'11년 총 36개국 17억 5,890만불(34.2%↑) 수주 전망**(매출 중 수주 비중 **최초로 15% 돌파 전망**)

① **(삼성 SDS)** '10년 총 18개국, 5억 5,430만불 수주 실적 → '11년 총 29개국 진출, **8억 7,650만불(58.1%↑)** 수주 예상(해외 매출 비중 25% 상회 전망)
* ('11년) 통합물류 관리시스템(러시아), 스마트인프라 고속도로망 관리시스템(브라질/아르헨티나)

② **(LG CNS)** '10년 총 10개국 진출, 2억 2,430만불 수주 성과 → '11년 총 15개국 진출, **3억 340만불(35.3%↑)** 수주 예상
* ('11년) 병원통합운영관리 솔루션 및 관리시스템(미국), 도시운영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그린씨티사업(호주)

③ **(SK C&C)** '10년 총 7개국 1억 2,372만불 수주 실적 → '11년 총 13개국 **2억 7,630만불(223.3%↑)** 수주 전망
* ('11년) 통합모바일 지불결제시스템(미국), 에너지효율화 관리시스템(모로코/알제리)

3 **(임베디드SW) '11년 생산**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4.4조원, 수출액**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90.6억불** 전망

* ('10년 실적) '10년 생산액은 전년대비 15.0% 상승한 12.4조원(전체의 32.6%), 수출액은 전년대비 13.2% 증가하여 약 78.9억불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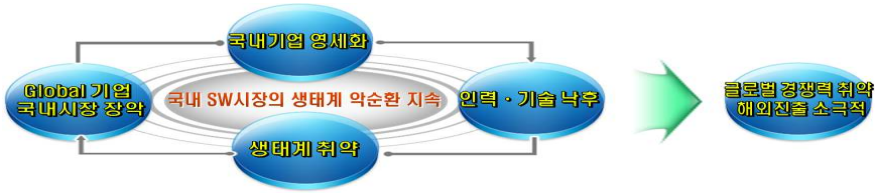
○ 세계 경기의 회복 추세 지속으로 모바일·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실적개선과 함께 **임베디드SW의 생산·수출도 증가할** 전망

II 우리 SW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 문제점 개요 】

◈ 국내 SW시장의 **생태계 악순환 지속** ⇒ **해외진출 확대 애로**

【국내 SW시장의 생태계 악순환 고리】



1 국내 **패키지SW 시장**은 MS, 오라클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이 대부분 장악** (국내시장의 64.4% 점유, '09년)

* IT서비스는 언어·환경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현지화 경향(국내기업 81.4%, '09년)
* 국내 패키지SW는 세계 100대 기업 全無('09년 핸디소프트 318위, 안철수硏 387위)

2 이에 국내 기업들은 **공공시장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적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저가·과당경쟁 야기**

* 패키지SW의 경우 기업당 평균매출 18.5억원('08)

○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근로여건 악화 및 투자 여력 부족** → 우수인력 이탈 심화 → R&D투자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경쟁력 약화되는 악순환** 초래

* (인력수급 악순환) 기술·가격경쟁력 부족 → 수익성 악화 → R&D·인력투자 저조 → 처우·보상 미흡 → 우수인력 이탈 → 경쟁력 저하
* 매출대비 SW투자 규모 : (대기업) 0.59%, (중소기업) 2.42% (美 Oracle 12.2%)

○ 공공시장 **의존 심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악순환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

* 사업단가 : 원도급자는 발주금액의 88% 수준,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

⇩ ⇩ ⇩

◈ 이러한 생태계로 인해 SW산업은 물론 중국 등 후발공업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우려**

* Bosch(獨) 디젤차량 EMS, Olympus(日) 내시경장비 등 獨·日은 제조업 분야 강점

◈ 후발공업국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SW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

□ **(기업경쟁력 측면)** 국내 기업들은 **인적 자원 취약, 기술경쟁력 미흡** 등으로 **국내시장을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장악당한 상황**

* 패키지SW 시장점유율('09) : (MS) 11.3%, (IBM) 7.5%, (Oracle) 6.4%, (SAP) 3.5% 등

○ **(패키지SW)** 우리 기업들은 **영세성***, M&A를 통한 **성장기반 미정착, 비교우위 분야 활용 미흡** 등 SW개발 생태계 열악

* 매출 50억원 미만이 전체(1,980개)의 87.8%(1,738개), 10억원 이하가 55.7%(1,103개)

** 해외 : (독일) 제조업 강점 ▸ SAP(ERP), (프랑스) 디자인 강점 ▸ 다쏘시스템즈(설계), (이스라엘) 국방 강점 ▸ 체크포인트(보안 SW)

○ **(IT서비스)**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은 **그룹사 전산센터 역할**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81.4%)하였으나, 해외시장 진출은 여전히 저조

*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 비중(%, '10) : (삼성 SDS) 16.8, (LG CNS) 11.8, (SK C&C) 10.3 ⇔ 글로벌 기업은 25% 수준

○ **(임베디드SW)**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도 **신뢰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운 **獨·日**의 소수 업체들이 장악

* (자동차) 보쉬(獨) : 전세계 디젤 차량 EMS(Engine Management System)의 50%이상
(조선) Furuno(日) : 선박 레이더 시장의 약 70% 점유
(의료기기) 내시경 장비는 올림푸스(日) 1개 업체가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

- 국내 시장은 **제조업 발달**로 **규모가 상당**(78.9억불, 세계시장의 5.9%)하나 **국내 기업의 영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 의존**

* 임베디드SW 국산화율(%, '08) : 휴대폰 15, 국방 10, 자동차 5, 로봇 5, 조선 4

□ **(인력 측면) 비효율적인 인력양성 체제**로 인해 **SW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심화

* SW 관계 인력 66만명 : SW 직접 종사자 10만 + 타분야 전산직 56만

○ **단순 개발인력(초급) 과잉, 시스템 구축(중급)** 및 아키텍트 등 **핵심 전문인력(고급)**은 **부족**한 상황

* 초급 ⇒ 공급과잉(약 3.1만명), 중·고급 ⇒ 공급부족(약 2.5만명)
* (Oracle) 낮은 등급의 솔루션개발은 저임금 우수인력의 인도에 아웃소싱

○ **미국은 SW아키텍트**가 최고의 인기직장*이나, **국내는 SW가 기피 분야**이며, 대학의 **이론위주 교육**으로 실무능력 겸비 **인력양성 기능은 취약**

* 미국은 '11년 유망직종 1위가 SW아키텍트, 5위는 SW시스템 분석가로 선정
* 4개 주요대학(서울대, 포항공대, KAIST, 고려대) SW전공자 졸업생 감소추이
- ('07) 297명 → ('08) 236명 → ('09) 235명 → ('10) 159명

○ SW기반 **융합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 도메인별 **SW 설계가 가능한 융합SW인력은 부족**

* 국내 임베디드SW 인력수급 전망 : 약 2,170명 부족('08~'12, 직능원)

□ **(기술·투자 측면)** 우리 SW산업의 **R&D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M&A 인프라 미흡 등으로 **기술축적 기능도 취약**

* 국내 SW R&D 총규모는 3.2조원('09), MS는 9.9조원(약 3.1배), IBM은 6.4조원(2.0배)

○ 이는 핵심경쟁력인 **SW품질을 향상**을 위한 역량 약화를 초래

* 국내 기업의 SW프로세스 품질수준(미국 100) : ('07) 61.9 → ('08) 65.7 → ('09) 67.5
* SW개발역량지수(CMMI) : (印) 4.30, (美) 3.06, (中) 2.97, (韓) 2.94 (5점 만점)

○ **미국 등에서는 기술획득용 M&A가 보편화**된 반면, 우리의 경우 **M&A를 통한 기술축적 기회 부재**

* 5년('04~'08)간 SW기업이 美 M&A시장의 약 10% : (MS) 78건, (IBM) 66건, (Oracle) 52건
* 통상 SW는 벤처캐피탈(VC) 투자 최우선 분야(美 18.5%)이나, 국내는 4%수준

□ **(생태계 측면) Global Practice와 괴리된 발주·유지보수** 등 낙후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생태계 초래

* 기획·발주시 내용 불분명, 시스템설계 미흡에 의한 SW품질 확보와 적정대가 산정 불충분 → 제값받기 곤란 → 하도급 가격 전가
* 정보시스템 구축은 통상 대형 IT서비스업체 일괄 수주, 전체의 50~60% 하도급

【SW 하도급 실태조사 (NIPA, '08)】

하도급 비중(%)	
원도급	33.6
하도급	66.4
- 1차	(28.9)
- 2차	(16.4)
- 3차	(5.0)
- 프랜서 등	(16.1)

구 분	원도급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사업단가 적용	88.4%	83.5%	80.7%	**69.4%**
하도급 단가인하		4.97%p	2.74%p	11.29%p
사업별 이익률	14.26%	9.98%	14.23%	5.94%
기업 평균 매출	200억원	50억원	50억원	20억원
해당기업 예시	삼성 SDS LG CNS	다우기술 휴먼아이티	씨알소프트 선문데이타	로직하이텍 엠씨게이트

□ **(해외진출 측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공적원조(ODA, EDCF)에 의존**하여 해외진출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쉽지 않음**

○ **(IT서비스)** RFP 작성 등 **Global Practice와 괴리**, 제한적 정보접근, 해외 영업망 부재, 관행 이해 부족 등 **독자 진출에 애로**

○ **(패키지SW, 임베디드SW)** 유통망 부재 등 **현지 시장접근 곤란**, 신뢰성 검증 미흡, 브랜드 인지도 저조 등으로 **틈새시장 공략 중**

III 그간의 정책 평가

□ 그동안의 정책이 주로 **중소 SW기업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된 **전략적 접근이 결여**되면서 **SW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

* IT서비스·임베디드SW·응용SW·공개SW 등 부문·기능별 SW에 특화된 정책 부재

○ 공급자(SW기업) **애로 해소 위주**의 정책이 양산되고, 공공발주 등을 통한 재원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는 현상도 초래**

* '09년 7,625개 업체가 존재하며, 연 10억원 이상 매출기업은 2,275개(패키지 SW 735, IT서비스 1,540)로 29.8% 수준에 불과(KEA)

○ SW분야별·기업별 고려 미흡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책 부재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 부재의 결과 초래**

* (이스라엘) 보안·국방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 선진국 틈새시장인 보안 SW시장 선점 성공, SW수출 ('95) 3억불 → ('08) 56.8억불(15배 증가)

□ SW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진흥보다 규제 마련**에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R&D기반 구축·인력양성 등에 공급과 수요 괴리 노정**

○ **「SW산업 진흥법」**은 산업육성보다 **사업대가·참여제한 등 경직적 계약제도*에 초점**을 맞춰 SW산업 고유의 개방성·역동성 저해

* 제도는 편법을 초래하고, 다시 또 다른 제도를 낳는 악순환 반복
- 例) 대기업 참여제한제 실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로 사업 수행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지원**에 **2,491억원**('05년~), **해외 진출 확대**에 **325억원을 투자**('03년~)하였으나, **내실있는 성과 도출 미미**

○ **(R&D)** 수동적 대응으로 틈새시장 공략, 성과물의 **산업계 확산에 한계**

○ **(해외진출)** 기반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노력, **가시적 성과 난망**

⇩ ⇩ ⇩

◈ **비교우위분야 '선택과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SW기업 생태계 조성**

◈ **인력·기술** 등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국내 주력산업 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IV 중점 추진 과제

1 전략적 R&D 지원 및 기술기반 구축

◈ **(R&D 지원)** SW 新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명품SW 제품 개발을 위해 **WBS프로젝트*** **등 혁신형 R&D** 추진(1,313억원)

*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10~'12년, 3년)

1 **(WBS프로젝트)** 금년에는 '10년 선정된 **7개 계속과제** 지원(240억원) 및 **'11년 신규사업**(760억원) **기획·추진**('11년 총 예산 1,000억원)

① **(신규과제)** '10년도 프로세스를 보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중요 분야를 선정·지원**하는 **Top-down 기획** 실시(760억원)

* SW개발자 위주 접근, 소형·요소 기술개발 과제 다수

- **(추진일정)** '11.4월 신규과제 기획 완료, **상반기內 컨소시엄 선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형 SW R&D 과제 기획·도출과 SW 중견기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컨소시엄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

② **(계속과제)** '10년도 선정된 **SW+제조업 과제 3개, SW+서비스업 과제 4개, 총 7개 과제의 차질없는 기술개발 수행**(年 240억원 규모)

* (SW+제조업) 모바일SW(인프라웨어, 60억원), 무인기SW(한국항공, 45억원), 자동차SW(인소프트, 24억원)

* (SW+서비스업) 보안SW(안철수연구소, 30억원), 영상진단SW(인피니트헬스케어, 24억원), 병원SW(이지케어텍, 30억원), 교통SW(스마트카드, 20억원) (※주관기관)

2 **(SW원천기술개발)** 임베디드SW, 공개SW, HCI(인간컴퓨터상호작용), 차세대 웹 등 **주요 SW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 ('11년 예산) SW산업원천기술개발 : 313억원 / 신규과제지원은 전체의 10~15%
* (일정) 신규 개발과제 공고(3월) → 지원기업 평가(4월) → 사업추진협약(5월)

3 **(범부처 R&D)**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범부처간 SW R&D 종합 추진**

○ **(대형 공동R&D) 범부처 기술영역**을 포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비용·고위험 분야 사업을 「메가프로젝트」로 선정**

* 범부처 관점(기초기술·플랫폼·콘텐츠·서비스)의 R&D 기획·수행·상용화

- **「범부처 SW R&D협의체」 구성,** 메가프로젝트 발굴('11.2월~)

◈ **(R&D 기반구축)** 우수한 SW기술의 연속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SW 품질을 강화하고 R&D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

□ **(SW R&D개편)** 최신기술 발전경향에 적극 대응한 명확한 개발 추진

○ **(R&D 목적 명확화) 가치지향형**과 **시장지향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목적성을 갖는 **중대형 지주과제**를 중점 지원('11.10월)

- R&D 과제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

* 가치지향형(**기반기술확보형**(Basis), **시장기회창출형**(Opportunity)), 시장지향형(**국가수요대응형**(National Needs), **산업수요대응형**(Empowerment))

- 세부적으로 구분된 '기술조립형' 사업 발굴을 지양하고, **산업성·기술 선도성**을 고려한 중대형 **기술완성형 과제 우선 지원**

○ **(R&D 트렌드 명확화)** 미래 예측을 통해 **'1세대를 앞서 나가는' "SW주도형 시스템" 개발로 전환할 기술 확보 추진**('11.10월)

* 신규 SW R&D 프로젝트는 미래형 SW-defined 제품·서비스 발굴에 집중

- SW R&D영역 재설정과 목적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의 **SW기술 로드맵을 지속 개선**

* 기업·대학·출연연·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 기술리더그룹 운영

□ **(SW품질 강화)** SW개발체질 향상을 위해 **품질 선진화 방안** 추진

○ **(인식전환)** SW개발자는 물론 CEO, 관리자 등 경영층을 포함한 모두가 인식하는 **선진화된 SW품질 인식제고 활동 추진**

* 정기 CEO 세미나 추진(년 2회), 해외 선진기업의 품질관리체계 체험 선진기업 견학단 운영(년 2회), SW개발자·학계가 참여하는 포럼·커뮤니티 운영

○ **(품질기준확립)** ISO/IEC 등 선진 SW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인증과 기술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SW R&D 관리 선진화** 추진

* SW품질인증 체계 확립 및 공공부문에 대해 단계적 적용 추진('11.7월)

○ **(품질지원)** SW품질지원 자원 확보를 위한 **SW품질 컨설팅 체계 마련**과 컨설팅 기관의 **자격·수행능력 관리**를 추진

* SW컨설팅 기업 육성 및 국책 R&D 수행시 적용 검토('11.7월)

2 창의적 SW 최고급·융합 인재 육성

◈ **산업의 頭腦** 역할을 수행할 **SW 최고급·융합인재 육성** 및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 '11년 SW인력양성에 **232억원을 투자, 3,520명 교육 추진**

1 양질의 SW 인력양성과정 운영으로 시장 수요변화에 탄력 대응

①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매년 **70여명 규모**를 선발(3월, 9월)하여, **석사 인력으로 양성하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 ('11년 30억)**

* 1기('08~'10년) : 180여명 지원 중, 2기('11~'13년) : 200여명 신규지원 계획

② **(SW융합 역량강화과정) SW융합이 활발한 5대 제조업***을 대상 **컨소시엄** 선정(4~5월), **2,000여명의 재직자 교육** 실시 **('11년 30억)**

* 5대 주력(자동차, 모바일, 기계, 전자, 조선) 등 + 주력 외(임베디드SW 등)

③ **(SW융합 채용연수 사업) SW융합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선정(3월), **연수생 선발**(4월) 및 **교육 후 취업** 연계 **(신규추진, '11년 47억)**

2 최고급 SW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①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최고급 인재 **100명을 선발**(5~6월), **최고 전문가 30인을 통한 도제식 교육**(1.3년 소요) 및 검증 **('11년 50억)**

* 금년 10월경, 최초 마에스트로 인증식에서 **지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위한 **MOU체결** 추진(장관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참석 추진)

② **(IT 명품인재 양성) 연구중심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 등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100명, 3월 사업자 선정) **('11년 75억)**

【 연도별 SW 인력양성 계획 】

구 분		'10년		SW인력양성 계획 (단위 : 명)							
				'11년		'12년		'13년		계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고급인재	마에스트로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300	300
	고용계약형	180	35	220	70	225	75	225	75	370	220
융합인재	역량강화	2,000	2,000	2,100	2,100	2,200	2,200	2,300	2,300	6,600	6,600
	채용연수	-	-	1,000	700	1,000	700	1,000	700	3,000	2,100
계		2,280	2,035	3,420	2,970	3,525	3,075	3,625	3,175	10,270	9,220

※ **연평균 3,500여명 대상의 교육**을 통하여, **3개년에 걸쳐 총 9천여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1만여명 교육)할 계획 (IT 명품인재 양성은 제외)

3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SW기업들의 **수발주제도 개선, "제값주기" 관행 유도 및 Global Practice** 확립을 통해 SW생태계 혁신

⇒ 제도적 기반 개선을 위해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11.12월), **Global Practice 시범사업** 전면 추진(~'11.9월까지 사업 발주)

1 **(SW산업 진흥법 개정)** 하도급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공공시장 수발주제도 개선 및 세부 분야별 산업진흥을 위해 **전면 개정**(~'11.12월)

○ **(하도급 개선)** SW 공공발주 사업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및 하도급 실적 등록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포함토록 법령 개정

○ **(수발주제도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BMT 의무화), **중소기업 우대**(상용SW 중소기업 평가항목 신설), **SW 제값받기**(상용SW 유지보수율 현실화) 등

○ **(분야별 산업진흥)** 인력·R&D 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세부 지원 방안 마련

* 산·학·연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 마련

2 **(Global Practice 도입)** 해외 기업의 RFP 작성 프로세스 등 도입, **국내 발주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

○ **(新RFP) 선진 RFP 체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되, **다양한 레퍼런스 구축**을 위해 **少額多種의 발주사업 발굴**('11년 2천만원씩 10개 사업)

- **공공부문에 활용빈도가 높은 사업유형**을 '11년 初에 공모, 상반기 중 발주사업 선정, 하반기 중 新RFP 시범사업 실시(~'11.9월)

- '11년도 시범사업 이후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단계별 확대 적용**을 위해 기관별 新RFP **의무 도입 quota 할당 검토**(~'11.11월)

* 例) ('12) 10% → ('13) 25% → ('14) 50% 등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단계별 확대

○ **(분할발주 및 PMO 도입)** SW사업 구축시 설계·개발 단계를 각각 분할, **단계별 전문성·책임성 강화** 및 **사업지원 전문컨설팅 기관**(PMO) 육성 검토(~'11.9월)

* 분할발주 : 現 발주체계는 최저가입찰, 과업변경 및 유지보수 책임 하도급 전가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방법 및 지원조직, 일정 규모 이상 SW사업은 PMO를 통해 기획·구축·운영까지 전문화된 관리체계 도입

4 SW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협소한 국내시장 극복, 국산 SW제품 글로벌 품질향상, 국내 SW기업의 글로벌화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SW해외시장 진출 확대 필수적**

⇒ '11년 국내 SW기업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공 차원에서 **유형별 해외진출 맞춤서비스 시행**을 위해 **77.5억원 지원 계획**

1 **Project 수주 및 서비스형 수출지원 (32.5억원)**

○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대규모 IT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기술지원 추진,** 국내 IT서비스기업 참여확대 등(6억, '11.3월)

○ 신흥경제시장(자원부국)과 의료(u-Health) 등 **스마트 솔루션 기반**을 대상으로 **정보화 컨설팅 제공, 수주상황실 운영**(26.5억, '11.3~4월)

2 **패키지SW 제품 해외진출 지원 (28.5억원)**

○ Global Practice에 기반한 품질확보를 위해 **주력 수출제품 대상으로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25억, '11.5월)

○ 수출지원 유관기관 **SW 기술영업 교육**, 글로벌 SW시장 **진출전략 연구용역 수행**(1.5억, '11.6월)

○ Gartner, IDC 등 글로벌 조사기관 **국제 컨퍼런스, 시장조사 리포트, 애널리스트**를 활용하여 **국산제품 글로벌 인지도 제고**(2억, '11.6월)

* IBM, MS, Oracl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유수의 시장조사기관 등을 이용하여 마케팅 지원

3 **글로벌 인프라 수출지원 (16.5억원)**

○ 대·중소(4개), 국가별(美·日 2개) 협의체 확대·운영, **중소기업 + 대기업의 선단식 진출 유도로 브랜드 취약성 보완**(3.5억, '11.4월)

○ 해외SW영업·발주정보 통합 운영 및 **SW현지 유통지원**(5억, '11.3~5월)

○ 우수 패키지 SW기업의 **현지 법률·경영 등 컨설팅교육, 채널 네트워킹 지원**(7.5억, '11.5월)

○ SW기업 기술력, IT서비스기업 프로젝트 역량, 글로벌 HW기업 시장 지배력 등 고려한 컨소시엄 운영, **全방위 수출프로모션 추진**(0.5억, 6월)

5 SW-SoC 동반육성 전략 수립 (11.6월)

□ 추진배경

○ **주력산업 경쟁력 및 융합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이나, 우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열악한 상황 타개

□ 주요내용(안)

○ 美·日 등 선진국, **대만·인도 등 신흥 SW-SoC 강국사례 집중 분석**

○ SW-SoC 경쟁력 핵심요인 분석

- **SW-SoC 각각의 산업 경쟁력 분석**(자금, 기업성장체계, 인프라, R&D)
- **주력산업-SW-SoC간 융합 경쟁력 분석**(Target 업종 선정 및 로드맵 분석)

○ **글로벌시장 진입가능성 분석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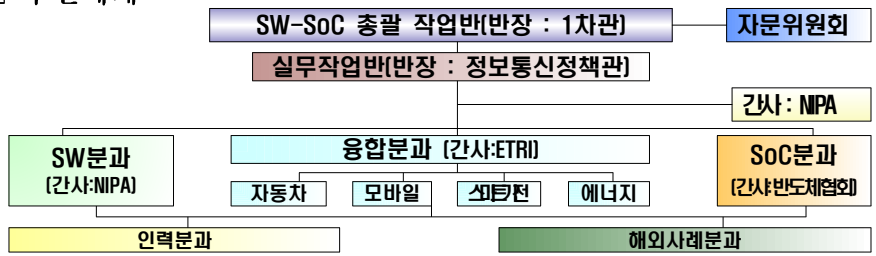
- 핵심 SW-SoC **개발 필요·가능성 분석**을 통해 **'선택&집중' 전략 마련**

* 例示 : ① 글로벌시장 Target型, ② 니치마켓型, ③ 수입대체型

○ **인력수급 현황분석 및 대책**

- SW-SoC 기술수준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인력양성시스템 현황 분석
- 기술 수준별 SW-SoC 핵심 인재양성 방안 마련

□ 추진체계



□ **향후계획**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SW-SoC 동반육성 전략」 수립(11.6월)

○ 3월 마지막주 작업반 전체 참여 SW-SoC 총괄 워크샵 개최(3.31~4.1)

○ 분과별 보고 4.21일까지 완성, 실무작업반은 **4.30일까지 최종 보고서 확정**

* 총괄작업반은 초안(4.7) 및 최종보고서 완성시점(5.4)과 지경부 보고서 초안 완성되는 시점(6월)에 개최

Ⅴ 세부 추진 일정

실천 과제	일정(까지)	관련기관
1. 전략적 R&D 지원 및 기술기반 구축		
· SW원천기술개발 신규 과제 공고	'11.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WBS프로젝트 신규과제 사업자 선정	'1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SW 품질 선진화 방안 확정	'11.7	지경부/SW공학센터
· SW R&D개편 완료	'11.10	지경부
2. 창의적 SW 최고급·융합 인재 육성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70여명 선발	'11.3,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융합 채용연수생 선발	'1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 100명 선발	'1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 新RFP 시범사업 실시	'1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분할발주 및 전문컨설팅기관(PMO) 도입 검토	'11.9	지경부
·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11.12	지경부
4. SW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정보화 컨설팅 제공, 수주상황실 운영	'1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대·중소, 국가별 협의체 확대·운영	'1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산제품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1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SW-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전략 수립		
· SW-SoC 총괄 워크샵 개최	'1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분과별 보고 및 실무작업반 보고서 확정	'11.4	지경부
· 총괄위원회 보고서 확정	'11.6	지경부

참고 2011년도 SW산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류	2010년	2011년	증감율(%)
< SW 해외진출 >	7,100	7,445	4.9
< SW R&D >	94,058	160,058	70.2
○ SW 원천기술개발	35,358	31,258	△11.6
○ WBS 프로젝트	24,000	100,000	316.7
○ 기술확산 지원 및 연구기반 구축	34,700	28,800	△17.0
< SW 인력양성 >	11,000	23,200	110.9
< SW 생태계 조성 >	26,135	23,511	△10.0
합 계	138,293	214,214	54.9

붙임 2 SW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

□ 행사 목적

○ 중소 SW기업현장을 직접 방문·격려

○ SW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개 요

○ 일 시 : 2011년 2월 21일(月), 11:30~13:30(120분)

○ 장 소 : 서초구「인프라웨어*」본사(현장방문)/메리어트 H(간담회)

* 국내 대표 모바일 SW기업(매출 300억원(09), 국내 브라우저시장 70% 점유)으로, 적극적 M&A(최근 6개월간 3건)를 통해 대형화 도모중

○ 참석자(총 26명)

- (업계) : 삼성SDS(고순동 사장), 비트컴퓨터(조현정 회장) 등 14명
- (學·硏) : 전자통신硏(김홍남 원장), 서울대(고 건 교수) 등 7명
- (지경부) : 장관, 성장동력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4명

*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현장방문	11:30	-	인프라웨어 도착	
	11:30-11:35	'5	**환담 및 인사말씀**	1층 라운지
	11:35-11:45	'10	회사소개	
	11:45-12:00	'15	모바일 SW 기술 시현	
	12:00-12:15	'15	사무실 방문 및 직원 격려	3층(기념촬영)
12:15-12:30		'15	이동 : 인프라웨어 → 메리어트 호텔	
간담회	12:30-12:35	'5	**인사말**	**장 관**
	12:35-12:50	'15	'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 발표(오찬병행)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2:50-13:25	'35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 논의	참석자
	13:25-13:30	'5	**맺음말**	**장 관**

□ SW산업 간담회 민간 참석자

구분	소 속	성명	직책
업계 (14명)	삼성SDS	고순동	사장
	LG CNS	김대훈	사장
	SK C&C	정철길	사장
	포스코ICT	허남석	사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선주	사장
	이글루 시큐리티	이득춘	사장
	웨어밸리	손삼수	사장
	티맥스소프트	이종욱	사장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사장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사장
	MDS테크놀로지	이상헌	사장
	인프라웨어	강관희	사장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오경수	회장
학계 (4명)	서울대학교	고건	교수
	고려대학교	백두권	교수
	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
	광운대학교	공진홍	교수
유관기관 (3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
	전자통신연구원	김홍남	원장
	KETI	최평락	원장

붙임 3 방문업체 (인프라웨어) 참고자료

1. 일반 현황

□ **(개요)** 인프라웨어는 15년차 **모바일 SW업체**로서 국내외 수요기업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SW업체중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評

* 설립('97.4.3) → 상장('05.10.28, '10.3분기 기준 시가총액 1,324억원으로 코스닥 165위)

○ 영위 사업 분야는 **휴대폰과 방송기기용 내장형**(Embedded) **SW**

□ **(지점)** 본점은 서울, 미국 산호세와 중국 베이징에 **두 개 지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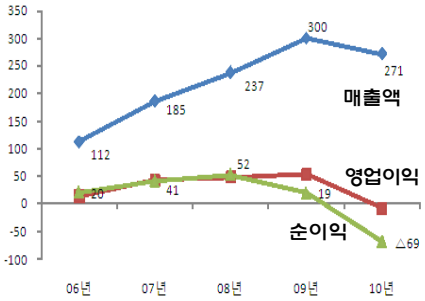
* (美) '09년 설립, 3명(엔지니어 1명, 마케팅 2명), (中) '05년, '13명(엔지니어 3명, 마케팅 10명)

□ **(재무현황)** 세계 3대 휴대폰 제조사(노키아, 삼성, LG)에 제품을 납품하여 꾸준히 매출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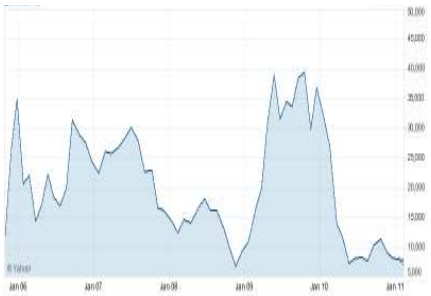
□ **(인력구조)** '10.3분기 기준 직원수는 총 306명으로. 연구직 245명(79%), 관리 사무직 61명(21%)으로 석박사급 45명을 포함, **대부분이 연구개발직**

* '11.2월 현재 340명으로 30여명 증가

< 최근 5년간 재무정보 >



< 상장 이후 주가 추이 >



2. 인프라웨어 주요 생산제품 모바일 및 방송용 브라우저

□ 인프라웨어는 **모바일·방송 기기에 특화된 독자 SW**(브라우저) 기반 **제품 생산·판매, 기술지원, 맞춤용역** 등에서 주요 수익 창출

① **모바일 브라우저** :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에 탑재되어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피처폰 WAP 브라우저 국내 최초 상용화('99년)

* SKT, LGU+ 독점 납품자로 국내 시장 점유율 70%, 글로벌 CDMA 시장 11% 점유

② **모바일 Office** : 모바일 기기에서의 **문서 작업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한글, 엑셀 등 **다양한 문서 열람 및 편집이 가능**한 장점 보유

③ **방송 솔루션** : 셋톱박스중 데이터 통신 담당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모바일 브라우저 기술 기반으로 **IPTV 브라우저 시장 선도**

④ **New Business** : 모바일 게임, 보안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 M&A 추진 (게임회사 조이모아 '10.8, 보안회사 쉬프트웍스 '10.11 인수)

< 주요 영위 사업 매출 현황 >

사업 부문	품목	매출액('10년)	비율
모바일 비즈니스	휴대폰용 브라우저	171.2억원	63.2%
모바일 오피스 비즈니스	오피스	62.4억원	23.0%
방송 비즈니스	브라우저	17.1억원	6.3%
기타	기업용 솔루션 등	20.2억원	7.5%
총 계		270.9억원	100.0%

참고① SW산업 개괄

□ **(IT→SW)** IT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로 구성

○ 전세계 IT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SW**는 전체 IT산업의 **1/3을 차지**하며 '02년 이후 **HW를 앞지르며 연평균 8.4%대 고성장**

* (HW)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LCD 등 : ('00년) 7,714억불 → ('10년) 7,679억불
* (SW) 패키지SW, 임베디드SW, IT서비스 등 : ('00년) 5,982억불 → ('10년) 10,121억불
* (통신서비스) 방송, 유무선통신 등 : 1.6조불 시장이나 내수의존 산업으로 국제 비교 무의미

□ **(SW산업) SW산업**은 크게 **IT서비스**와 **패키지SW**으로 구분되며, 두 분야는 본질부터 완전히 달라 **상이한 전략과 정책 필요**

○ **IT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IT시스템을 구축·관리해주는 **순수 서비스업**으로 **사업 수주·수행**을 위해 **대량의 DB,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필요**

* IT서비스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對고객 서비스 일환으로 극히 제한적

○ **패키지SW**는 제품의 라이선스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조업**으로서 개인, 업체, 정부 등 **다양한 고객층에 범용 제품 판매**

* MS Office(워드, 엑셀, PPT 등), 안철수연구소 백신 프로그램이 대표적

☞ **임베디드SW**는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 항공 등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SW로 주로 고객은 수요 대기업

* T-50용 비행제어SW, 아이폰의 iOS 등이 대표 사례
* 임베디드SW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업 성격이 공존하여 국제적으로 IT서비스로 분류되기도 하고 패키지SW로 분류되기도 함

< IT서비스·패키지SW·임베디드SW 비교 >

구분	산업분류	시장규모	글로벌 주요 기업	국내 주요 기업
IT서비스	서비스업	(세계)5,747억불(57%) (국내)22.4조원(59%)	IBM(美), HP(美), 액센츄어(美)	삼성SDS, LG CNS, SK C&C
패키지SW	제조업	(세계)3,048억불(30%) (국내)3.3조원(9%)	MS(美), 오라클(美), SAP(獨)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임베디드SW	제조업 서비스업	(세계)1,326억불(13%) (국내)12.4조원(32%)	윈드리버(美), 오페라(노르웨이)	인프라웨어, MDS테크놀로지

참고② 모바일SW

□ **(임베디드SW)** 국내 완제품(HW) 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임베디드SW**도 타SW분야에 비해서는 **경쟁력 있음**

○ 특히 HW 차별화가 한계에 부딪혀 SW 탑재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휴대폰, 자동차 분야**에 SW기업이 다수 분포

* (모바일SW) 이노에이스, 네오엠텔, 오비고 등, (차량SW) 인소프트 등

□ **(모바일SW)** 휴대폰 산업은 일반폰(Feature Phone)을 대체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SW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과 업체 구도가 완전히 변화**

○ 기존 일반폰에 없던 **SW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산업층이 세분화**되고 **주도 세력 변화** (Rule-setter : 이통사 ⇒ 플랫폼사업자)

* SW플랫폼은 HW를 제어하면서 각종 응용SW를 동작시키는 기본이 되는 SW로서 운영체제(OS)와 앱개발환경(MW)을 통칭하며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가 대표적

○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 구글은 **우수한 SW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 2강 체제**로 재편

* 구글 : (플랫폼) 안드로이드 ⇒ (앱마켓) 안드로이드 마켓 ⇒ (수익) 독자 서비스
* 애플 : (플랫폼) iOS ⇒ (앱마켓) 앱스토어 ⇒ (수익) 높은 마진으로 판매하는 HW

< 기능폰 ⇒ 스마트폰 변화에 따른 산업층 세분화와 시장주도자 변경 >

서비스 ☞ 이통사 -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	**서비스** ☞ 이통사, 구글 -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애플리케이션 ☞ 중소SW기업, 컨텐츠제공자 - 응용SW, 컨텐츠
하드웨어 ☞ 기기제조사 - RTOS, 응용SW - 디스플레이, 반도체(메모리, SoC), 기타 부품		**SW플랫폼** ☞ 애플, 구글 - 운영체제, 미들웨어
		하드웨어 ☞ 기기제조사 -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타부품 등

* 스마트폰 생태계 구성요소 : 앱마켓, 애플리케이션, 응용SW 개발자, 컨텐츠 제공자, 칩 업체, 제조사, 통신사 등